

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0.01.28.~2020.02.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은 수빅 홀리데이 빌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숙소와 수업 건물이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각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숙소와 수업 건물 사이 수영장이 있고, 바로 앞에 식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약 10분 정도 타고 가면 시내가 나오기 때문에 위치로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또 걸어서 조금 나가다 보면 대형마트와 음식점, 카페가 있기 때문에 위치는 만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를 평소보다 많이 사용하고 듣게 되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나 음식점, 택시에서 많이 대화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수업	수업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쉬는 시간은 10분이며, 1:1수업(4시간), 그룹수업(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주에 보는 레벨테스트 결과로 그룹이 정해지고, 그룹 수업에는 토익스피킹과 MMC활동, Face to face 수업이 있습니다. 1:1수업에는 총 네 분의 선생님과 수업하게 되며 교재를 통해 단어, 리딩 수업을 받게 됩니다. 1:1수업때는 정말 선생님과 일대일로 한 방에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휘나 회화 부분에 있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된 문법이나 자신이 계속해서 쓰게 되는 영어 문법에 대해 알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매 수업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면 변화하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필드트립	가장 먼저 수빅에 도착하면 각 조마다 한 선생님과 함께 '수빅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수빅투어를 돌면서 교통도 익히게 되고 주변 상점, 마트 위치도 확인한 후 물품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환전과 USIM 구입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요트투어, 워터파크, Nagwaling(기념관)을 다녀왔고 학교에서는 체육활동, 영화관람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3시부터 5시까지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금요일마다는 FUN FRIDAY로 재밌는 주제로 의상을 맞추어 입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예: 복고, 파자마, 컬러풀 데이)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1월부터 2월까지 필리핀의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낮에는 한국의 초여름 날씨, 밤에는 한국의 초가을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나 영화관 같은 경우 에어컨이 잘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얇은 가디건이나 걸칠 옷을 챙기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안전	기숙사에 SECURITY분들이 많이 계시고, 외출하고 돌아올 때 짐 검사와 ID 카드를 확인하십니다. 기숙사 입구에는 SECURITY분들이 항상 차량과 기사님을 확인하시고 들어 보내주십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에 대해 항상 손소독제를 뿌려 주셨습니다.
숙소	숙소 룸메이트는 비슷한 연령대에 맞게 정해 주셨습니다. 숙소 안에는 냉장고, 에어컨, 화장대 다 있었고 각 방마다 베란다 또한 있어서 수영복을 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나는 방에서는 터지지 않지만 로비에는 잘 터집니다. 숙소가 저희 학교 학생들이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밤에는 조용히 배려해야 합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아침, 점심은 보통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외부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죽이나 빵, 밥이 나왔고 점심에는 한식이 나왔습니다. 필리핀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서 저녁을 밖에서 자주 먹었는데 매일 학교 식당에서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메뉴가 가끔 겹치긴 했지만 맛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주방장님 저희 학교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교통	걸어서 10분 정도 나가면 스타벅스, 대형마트, 음식점, 마사지샵 등 다양한 상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FB나 택시를 불러 중심지인 하버포인트로 나갔고 거기서는 지프나 트라이시클을 타고 더 멀리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나가거나 들어올 때는 최대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나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평균 20페소였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690,000	
여행자보험	23,470	
환전	700,000	여행, 쇼핑
합계	1,413,470	

5. 출국 전 준비사항

최소한의 짐을 챙기시고 출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선물이랑 과자로 짐이 다시 채워지고, 개인 수화물 무게를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샴푸나 비누, 휴지와 같은 생필품은 방 룸메이트와 상의하여 같이 현지에서 구입하시고, 빠뜨린 물품이 없는지 확인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수업이나 졸업식때 선생님들 선물을 사곤 하는데 이 때 편지지, 선물은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환전은 한번에 다 하지 마시고 첫 주에 200달러~300달러 환전하시고 부족할 때 마다 조금씩 환전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배우러 가는 필리핀이지만 단어를 많이 알면 수월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4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아쉬웠습니다. 4주동안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었고, 많은 시간동안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선생님과 계속해서 영어로 통화하고 대화하고 있고, 많은 정이 들어 다시 가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4주동안 한국에서 토익을 공부할지 필리핀에서 회화공부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고 영어에 대한 재미와 자신감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고 싶고, 많은 친구들이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함께 잘 지낸 친구들, 오빠들, 언니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인연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첫 번째 액티비티, '요트투어'



다 같이 외출



기숙사 수영장



세 번째 액티비티, '워터파크'



Fun Friday (잠옷데이)



선생님과 함께